

완제품 수입의 어린이책이 늘고 있다

계약 때 옵션으로 일방적 요구... 난이도 높은 제작기술 개발이 급선무

편집에서 제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외에서 제작하는 출판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제작이 까다로운 아동용 그림책이나 팝업북(POP-UP BOOK)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이같은 현상은 외국 원작물의 국내출판이 늘어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종래 출판물 외국제작의 경우는 소리나는 칩이나 고무자석 등 출판물에 부가되는 부품이나 부록, 사은품 등을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 등지에서 제작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90년대 들어서면서 로열티를 치르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이나 특수제본이 필요한 아동물에 많아

이같은 현상은 국외출판물을 수입할 경우 계약조건으로 완제품 수입을 요구하는 수출국의 관행과 국내 제작이 불가능한 특수한 필름사용 등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또 국내 출판사들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동제작이라는 이름 아래 한글식자 정도만 현지에 보낸 다음 어쩔 수 없이 완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웅진출판사는 생태 그림책이 책인 《야 찾았다》(전4권)시리즈를 프랑스에서 제시한 계약조건에 의해 싱가포르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93년 출간한 《손바닥 그림책》(전6권)은 일본과 공동개발한 다음 재판부터는 싱가포르에서 제작한 것을 들여오고 있다.

아동물 출판사인 꼬마샘터도 프랑스 갈리마르의 《첫 발견시리즈》(전 28권)를 기술상 문제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마루벌에서도 국내 제작이 불가능한 프랑스 갈리마르판 어린이용 백과사전 《지식의 뿌리 시리즈》 1차분 4권을 이탈리아에서 제작해 완제품을 들여온 바 있다.

시공사는 미국책인 《무지개 물고기》를 기술상의 문제와 계약조건 때문에 벨기에에서 제작했으며 도서출판 까치에서는 영국책인 《식물의 사생활》을 현지에서 제작, 곧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국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경우 장단점이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국내 출판사가 제작 관



아동용 그림책의 해외 제작이 늘고 있다.

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계약한 후 한글식자를 보내기만 하면 배편을 통해 책이 국내에 들어올 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책의 종류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내에서 제작했을 때와 단가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해당 출판사들의 설명이다.

반면에 일정량을 수입한 다음 더이상의 수요가 생겼을 때, 즉 재판을 찍어야 할 때 또 다시 제작과정과 통관을 거쳐 외국에서 들여오는 절차가 번거롭고, 그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즉각적인 독자들의 수요에 맞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재판수요에 대한 즉각 대응은 어려워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출판계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선 지구촌 시대를 살면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외국책을 수입하거나 공동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까치의 박종만 사장은 “긍정이나 부정으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세계화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좋은 책을 내는 과정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고립을 고집하는 것은 국내 출판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편, 수출국에서 옵션으로 제시하는 것에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계약 성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웅진출판의 김성춘씨는 “판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출판사가 자국이나 제3국에서 제작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점차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투자에 적극 나서야

날로 고급화하는 독자들의 시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내 아동물 출판은 아무래도 힘이 부친다. 출판사들의 기획이 있다 해도 어린 독자들을 사로잡을 만큼 기발하고 예쁜 책을 만들 기술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윤을 목표로 하는 출판사들이 이미 만들어져 호평받고 있는 외국도서에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외국의 문화상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경직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쌍방 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는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출판계의 중론이다.

이 현상을 보는 국내 출판관계자들의 공통된 생각은 “국내 출판 인쇄 문화의 발전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출판사들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양질의 출판물을 기획 제작하고 인쇄 제본업계는 하루빨리 직업성에서 탈피해 기술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명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우리가 일방적인 출판 수입국이 아닌 출판 수출국이 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 허 연 기자

화제의 책

알기 쉬운 지적재산권의 이해

황종환 지음 《돈이 되는 나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함께 지적재산권이란 단어는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아직 지적재산권이 신무역질서의 핵심으로 언급되는 이유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저자(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에서부터 활용 영역 등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서술해 실무자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우선 최근 ‘지적재산권’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우리의 인식수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체적인 윤곽으로 설명한다. 지적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의 문제를 풀이한다.

2장부터 마지막 11장까지는 특허권, 실



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칩, 상품화권,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활용영역을 설명한다. 특히 ‘저작권’편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저작권을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저작권 침해시 구제방법 등 실무적인 의문도 풀이해 출판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566-7167)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A5신 / 304면 / 7000원